



미 증시, 블라드 총재의 매파 발언 소화하며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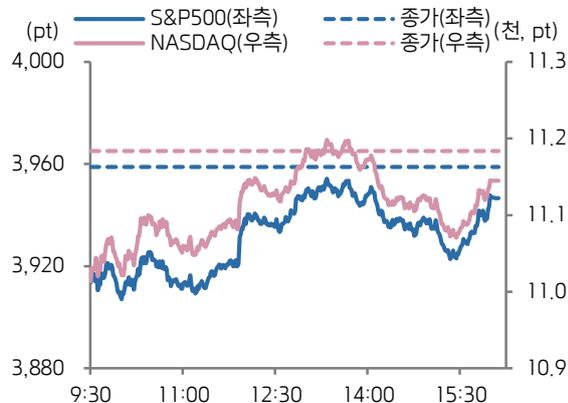
17 일(목) 미국 증시는 고용 및 제조업 지표들의 혼재된 결과 속 최종금리 5~7%대를 시사한 블라드 총재 발언으로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반 이후 반도체 및 테크주를 중심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다우 -0.02%, S&P500 -0.31%, 나스닥 -0.35%). 업종별로는 기술(+0.21%), 에너지(+0.12%), 필수소비재(+0.02%) 등이 강세, 유틸리티(-1.79%), 경기소비재(-1.27%), 소재(-0.9%) 등이 약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있지 않다면,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제약적인 레벨의 경우, 기존에는 기준금리 상단이 5%로 분석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최소한 5.25%에 도달해야 한다고 진단. 또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플레이션 갭과 성장률 갭을 고려한 테일러준칙을 적용해보면 최종금리레벨(=제약적 금리수준)이 5~7%대일 것이라고 전망.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연준의 책무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다면서, 최근 CPI와 PPI 하락은 좋은 일이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는 현재 긴축을 유지해야한다고 시사. 동시에 현재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은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수요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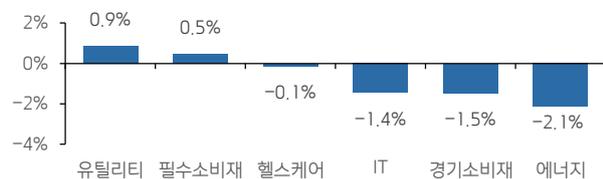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2 만건으로 전주(22.6 만건) 및 예상치(22.만건)를 모두 하회, 반면 4 주이동평균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1만건으로 전주(21.9만건)에 비해 소폭 증가. 11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는 -19.4로 전월(-8.7) 및 예상치(-6.2)에 비해 큰 폭 부진한 모습을 보임. 신규주문, 출하, 고용 등 주요 세부항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등 향후 해당지역 제조업체들의 업황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 확정치는 10.6%(YoY)로 전월(9.9%)에 비해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전 예비치(10.7%)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 에너지(4.4%p), 식료품(2.7%p), 서비스(1.8%p) 순으로 전반적인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46.56	-0.31%	USD/KRW	1,339.03	+1.01%
NASDAQ	11,144.96	-0.35%	달러 지수	106.65	+0.34%
다우	33,546.32	-0.02%	EUR/USD	1.04	-0.27%
VIX	23.93	-0.75%	USD/CNH	7.15	+0.57%
러셀 2000	1,839.12	-0.76%	USD/JPY	140.19	+0.49%
필라. 반도체	2,719.10	+1.0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159.91	-1.03%	국고채 3년	3.812	+0.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849	-5.1bp
Eurostoxx50	3,878.42	-0.11%	미국 국채 2년	4.454	+9.9bp
MSCI 전세계 지수	616.56	-0.76%	미국 국채 10년	3.768	+7.8bp
MSCI DM 지수	2,657.58	-0.7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4.31	-0.66%	WTI	81.95	-4.25%
MSCI 한국 ETF	57.68	-1.52%	금	1778.2	-0.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2.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부진한 실적으로 인한 아마존의 시간외 주가 폭락이 국내 전반적인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글로비스, 삼성중공업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3.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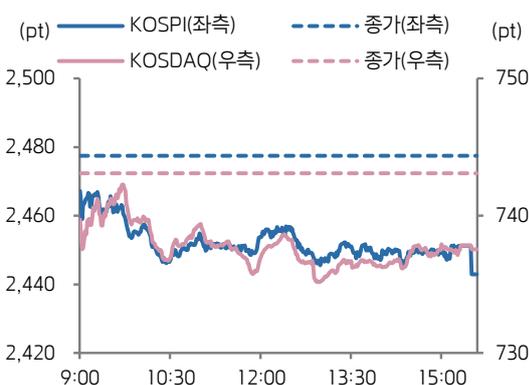
전일 발표된 소매판매 지표 서프라이즈로 오히려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 소매판매는 10 월 소비자물가 월간 상승률인 0.4%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소비가 견조함을 시사. 그러나 동시에 타겟의 급락에서도 알수 있듯 향후 소비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되는 상황. 마찬가지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2만건(예상 22.5, 전주 22.5만건)로 예상보다 더 하락했지만 최소 2주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5 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아마존, 메타 등 최근 몇달 간 이어진 빅테크들의 감원 여파가 지표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되며 내년도 미국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역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최종 기준금리를 기준에 연준이 제시한 상단을 상회하는 5~7% 대로 제시하. 이는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 이후 형성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임. 현재 CME Fed Watch 상 12월 FOMC 50bp 인상확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내년 2월 FOMC 25bp 인상확률은 50%대에서 소폭 하락한 40%대를 보이고 있음. 향후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2월 50bp 인상 확률이 상승 시 주식시장은 한차례 더 변동성 장세를 겪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17일(목) 코스피는 미국 소비 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마이크론 추가 감산으로 인한 반도체 종소형주 약세 및 대형주 중심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1.4%, 코스닥 -0.8%). 금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및 일부 대형 테크주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재료에도, 블라드 총재 발 연준 긴축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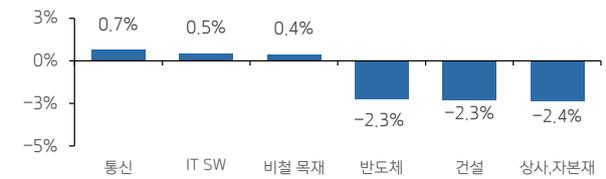
또한 10월 이후 코스피 기준 외국인이 이들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경우는 없었으므로 금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약화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코스피(현재 2,440pt) 역시 200 주선(2,499pt)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익전망치의 상향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PER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2500 선에 다가갈수록 관망세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반면 코스닥은 이제 20 주선(750pt)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스피와의 키밋추기 과정에서 코스피 대비 상승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또한 전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으로 네옴시티,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